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박사학위논문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문성모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문성모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도교수 최 성 우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문 성 모

문성모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류	소 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미 아	
위 원	호원대학교	교수	최	성 수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성 우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II. 연구 대상 및 방법	3
A. 연구대상 및 자료	3
B. 연구도구	4
C. 분석방법	8
III. 연구 결과	9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일반적 특성	9
2. 건강관련 특성	11
3. 직무관련 특성	13
4.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	15
5.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18

B.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20
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22
3.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24
4.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26
5.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28
C.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
 IV. 고찰	 33
 V. 요약 및 결론	 39
 참고문헌	 40
 부 록	 45

표 목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0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2
Table 3.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14
Table 4.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 in shock event	16
Table 5. Degrees of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19
Table 6.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21
Table 7.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23
Table 8.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25
Table 9.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experience in shock event	27
Table 10. Correlation among post-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29
Table 11.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31

ABSTRACT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Moon Sung-Mo

Advisor : Prof. Choi Seong Woo,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Methods: The subjects include 293 maritime police officers that received bas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on June 17 ~ July 31, 2019. Data was analyzed in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variance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Version 21.0 program.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scored mean 39.72 ± 16.56 points in posttraumatic growth, mean 84.46 ± 9.85 in resilience, mean 86.16 ± 16.21 in social support, 9.50 ± 2.26 in collective culture, 10.79 ± 1.94 in rational culture, 9.61 ± 1.95 in developmental culture, and 10.96 ± 2.00 in hierarchical culture. The study examined which factors would have impacts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and

found that marital status($\beta=.194$, $p=.002$), smoking($\beta=.152$, $p=.010$), regular exercise($\beta=-.185$, $p<.001$), total duration of service($\beta=-.154$, $p=.033$), resilience($\beta=.310$, $p<.001$), social support ($\beta=.250$, $p<.001$), and collective culture($\beta=.158$, $p=.004$) had impacts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These variables had the explanatory power of 56.5%.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demonstrate that the posttraumatic growth of maritime police officers was under the influence of supports from families and peers, working environment, and culture as well as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active manag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o relieve their stress. If there are changes to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culture to reinforce their bond with their families and peers and create a familiar atmosphere, the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ir posttraumatic growth.

Keyword: Organizational culture,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I. 서론

해양경찰은 해상경비 활동과 어업자원 보호를 시작으로 해상에서의 치안활동을 관장하는 경찰기관으로서 해상수색 및 구조,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충격사건을 경험하는 빈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생명·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당하거나 목격하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1]. 2016년 해양경찰 PTSD 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7.3%가 완전 PTSD, 17.4%가 부분 PTSD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 중 54.6%가 근무 중 충격사건을 경험하였으며, 한 달에 평균 6.6회의 충격사건에 노출 된다고 하였다[2].

충격사건 경험으로 유발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서적인 고통,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떠올림, 악몽 등 충격사건을 재 경험하고, 충격사건에 대한 반응을 둔감 시키며, 무력감, 기억손상, 더 나아가 우울 및 자살까지 이어지게 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반한 다양한 충격사건 경험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와 병리적 증상에 초점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 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충격사건 경험의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 이르게 하는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PTG)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4]. 외상 후 성장이란 한 인간이 삶을 위협하는 심리적·신체적 외상을 경험한 후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5]. 이는 외상 경험 이전의 심리적·신체적 적응수준의 회복 뿐 만 아니라 삶의 자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성장을 의미한다[6].

외상 후 성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방공무원[7], 경찰공무원[8], 외상을 경험한 신입공무원[9]등 심하거나 경한 충격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 연구는 미흡하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다고 하였고[4],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 또한 높다고 하였다[10].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회복탄력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1, 1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미치는 영향[13]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사건·사고 현장의 최초 반응자로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이 겪는 충격 사건은 직무 특성상 종류나 심각성이 다양하고 대부분 근무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과는 다르며[7], 충격사건 경험으로 인하여 직업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이 경험하는 충격사건의 종류나 심각성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근무 중에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외상 후 성장은 조직의 문화와 근무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와 같은 변인들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현재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기본 교육(경사·경위) 2개 과정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해양경비상황의 이해, 해양수색구조, 현장감식 전문, 수사경찰 양성) 4개 과정,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제어시스템 역량 강화, 수상구조사 자격취득, 2급 응급구조사 양성, 응급구조사 역량강화, 함정수중탐색장비 운용, 해상무선통신사) 6개 과정의 교육생 34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전체 해양경찰공무원 중 선발되고 지역, 근무부서 등이 편중 되지 않아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해양경찰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26일 기간에 각각의 교육과정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교육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후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347명 중 307명이 조사에 참여 하였다. 이 중 검토를 통해 답변이 누락되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14부를 제외한 총 293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 후 수행하였다 (CA17-190523-HR-008-01).

B.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월 소득을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20-29세, 30-39세, 4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과 기혼(기혼, 사별, 이혼)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은 흡연여부, 음주여부, 규칙적 운동 여부,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흡연여부는 현재흡연, 과거흡연, 비 흡연으로 분류하였고, 음주여부는 최근 한 달간 음주여부를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여부는 하루 평균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비 운동으로 하루 평균 30분 이상인 경우를 운동으로 분류하였고,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 7-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매우 좋음, 대체로 좋음)으로 분류하였다.

3. 직무관련 특성

직업관련 특성은 계급, 총 근무기간, 근무부서, 부서 근무기간, 경과를 조사하였다. 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근무부서는 경찰청(경찰서), 경비합정, 파·출장소, 특수구조단(구조대 포함), 기타로 분류하였고,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1-2년, 3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경과는 해양경과, 수사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분류하였다.

4.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은 충격사건 경험 횟수, 충격사건 종류,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조치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지지자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를 조사하였다. 한 달간 충격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 1-2회, 3회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충격사건 종류는 중국어선 단속, 변사체 처리, 세월호 구조 참여, 업무 중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해, 동료의 상해 또는 순직 목격으로 분류하였다.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 조치 여부,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 여부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충격사건 경험 후 지지자원은 가족, 친구, 조직 내 동료, 종교, 취미활동, 성격 등 개인역량으로 분류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는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5. 외상 후 성장

Tedeschi와 Calhoun[5]이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 경험자와 정상군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여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승훈 등[14]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K-PTGI)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지각 변화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지각 6문항, 대인관계의 깊이 증가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대인관계 5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을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가능성 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 종교 2문항으로 ‘전혀 경험 못함’ 0점부터 ‘매우 많이 경험’ 5점까지 Likert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송승훈 등[14]의 연구에서의 한국판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4 이었다.

6. 회복탄력성

신우열 등[15]이 개발·타당화 하고 유재성[16]이 이용한 회복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 통제성 9문항, 긍정성 9문항, 사회성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재성[16]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81이었다.

7. 사회적지지

박지원[17]이 개발한 도구를 김연수[18]가 수정 보완한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총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으로 ‘전혀 아님’ 1점 ‘매우 많이’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함을 의미한다. 김연수[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는 .96이었다.

8. 조직문화

Tracey 등[19]이 활용한 도구를 김호정[20]이 수정·보완하고 윤성현[21]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조직 내 가족적인 인간관계의 유지에 최대의 역점을 두며,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상호 신뢰, 참여가 핵심인 집단문화 3문항, 조직의 성과 달성과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강조하는 합리문화 3문항,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특히 조직이 당면하는 외부 환경에의 적응성에 큰 강조를 두는 발전문화 3문항, 명령·규칙에 의한

규제와 질서의 강조가 중심 가치가 되면서, 조직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는 위계문화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화를 강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윤성현[2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4이었다.

C.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WIN(ver.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t-검정과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alpha = 0.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90.4%, 여자 9.6%이었고, 연령은 30-39세가 43.7%로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에서는 배우자는 있는 경우가 63.5%이었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54.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65	90.4
	Female	28	9.6
Age(year)	20-29	68	23.2
	30-39	128	43.7
	≥40	97	33.1
Marital status	Single	107	36.5
	Married	186	63.5
Education	High school	67	22.9
	College	45	15.4
	University	159	54.3
	≥Graduate school	22	7.5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80	27.3
	300-399	72	24.6
	400-499	71	24.2
	≥500	70	23.9

2. 건강관련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흡연여부는 비흡연이 59.0%로 가장 많았고, 음주를 하는 경우가 68.9%로 많았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69.3%이었고, 수면시간은 6시간 이하가 54.3%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 좋음’인 경우가 63.5%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moking	Current	64	21.8
	Former	56	19.1
	Never	173	59.0
Drinking status	Yes	202	68.9
	No	91	31.1
Regular exercise	Yes	203	69.3
	No	90	30.7
Sleeping (hr/day)	≤6	159	54.3
	7-8	122	41.6
	≥9	12	4.1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36	12.3
	Fair	71	24.2
	Good	186	63.5

3. 직무관련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무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계급은 경장이 30.7%로 가장 많았고,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가 43.7%로 가장 많았다. 부서는 경비합정이 57.0%로 가장 많았고,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다. 경과는 해양경과가 69.3%로 가장 많았다(Table 3).

Table 3.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Ranks	Police officer	82	28.0
	Senior police officer	90	30.7
	Assistant inspector	66	22.5
	≥ Inspector	55	18.8
Total working years at maritime police	≤5	128	43.7
	6-10	74	25.3
	≥11	91	31.1
Job field	Police office	50	17.1
	Patrol vessel	167	57.0
	Substation & Branch office	23	7.8
	Special rescue unit	37	12.6
	Others*	16	5.5
Working years at current department	<1	139	47.4
	1-2	132	45.1
	≥3	22	7.5
Job specialties**	Maritime	203	69.3
	Investigation	9	3.1
	Info-communications	11	3.8
	Mission specialist	70	23.9

* Sea special attack team & Aviation division

** Types of police officers classified by their duties

4.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한 달 간 충격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이 82.6%로 가장 많았고, 충격사건 종류는 변사체처리가 30.1%로 가장 많았다.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의 예방 조치가 있었던 경우가 36.4%이었고,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가 36.4%이었다. 충격사건 경험 후 지지자원으로는 가족이 30.9%로 가장 많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를 받은 경우가 15.4%이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23.2%이었다(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 in shock event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umber of experience of shocking events(/month)	<1	242	82.6
	1-2	41	14.0
	≥3	10	3.4
Type of shocking events*	Chinese ship crackdown	38	12.8
	Dead body retrieve	89	30.1
	Participation in rescue work for the sewol ship	76	25.7
	Physical and mental injury at work	41	13.9
	A workplace fellow injuries or death	52	17.6
Organizational precautions after shock events	Yes	49	36.4
	No	102	67.5
Psychological consultation after shock events	Yes	55	36.4
	No	96	63.6

* Multiple response

Table 4. Characteristics of experience in shock event (continued)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upportive resources*	Family	99	30.9
	Friend	46	14.4
	Colleague	55	17.2
	Religion	23	7.2
	Hobby activity	47	14.7
	Inner resources	50	15.6
Test for PTSD**	Yes	45	15.4
	No	248	84.6
Experience of PTSD** related education	Yes	68	23.2
	No	225	76.8

* Multiple response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5.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연구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 ± 16.56 점(0-80점 범위)이었고, 하위영역은 자기지각이 15.96 ± 6.85 점(0-30점 범위), 가능성발견이 12.54 ± 5.87 점(0-25점 범위)이었다, 회복탄력성은 84.46 ± 9.85 점(27-135점 범위)이었고, 하위영역 중 통제성이 평균 29.67 ± 3.98 점(9-45점 범위)으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지지는 평균 86.16 ± 16.21 점(25-125점 범위)이었고, 하위영역 중 정서적지지가 평균 24.73 ± 4.71 점(7-35점 범위)으로 가장 높았으며, 물질적지지가 평균 19.03 ± 4.46 점(6-30점 범위)로 가장 낮았다. 조직문화의 하위영역 중 위계문화가 평균 10.96 ± 2.00 점(3-15점 범위)로 가장 높았다(Table 5).

Table 5. Degrees of post 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N=293)

Variables	Mean±SD	Range	Item Mean±SD
Post traumatic growth	39.72±16.56	0-80	2.48±1.03
Personal strength	15.96±6.85	0-30	2.66±1.14
Relating to others	7.69±3.50	0-15	2.56±1.16
New possibilities	12.54±5.87	0-25	2.50±1.17
Spiritual change	3.51±2.71	0-10	1.75±1.35
Resilience	84.46±9.85	27-135	3.12±0.36
Controllability	29.67±3.98	9-45	3.29±0.44
Optimism	28.41±3.81	9-45	3.15±0.42
Sociability	26.36±3.73	9-45	2.92±0.41
Social support	86.16±16.21	25-125	3.44±0.64
Emotional support	24.73±4.71	7-35	3.53±0.67
Appraisal support	21.35±4.10	6-30	3.55±0.68
Informational support	21.04±4.32	6-30	3.50±0.72
Material support	19.03±4.46	6-30	3.17±0.74
Organizational culture			
Group culture	9.50±2.26	3-15	3.16±0.75
Rational culture	10.79±1.94	3-15	3.59±0.64
Developmental culture	9.61±1.95	3-15	3.20±0.65
Hierarchical culture	10.96±2.00	3-15	3.65±0.66

B.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연령은 20-29세 45.80±11.12점, 30-39세 35.02±16.35점, 40세 이상 41.64±18.29점으로 20-29세, 40세 이상의 경우가 30-39세에 비해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F=11.118$, $p<.001$). 결혼여부는 미혼 43.06±14.09점, 기혼 37.79±17.58점으로 미혼인 경우에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t=2.649$, $p=.009$). 성별, 학력, 월 소득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Table 6).

Table 6.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Gender	Male	39.44±16.67	-.873	.383
	Female	42.32±15.56		
Age(year)	20-29 ^a	45.80±11.12	11.118	<.001 b<a,c
	30-39 ^b	35.02±16.35		
	≥40 ^c	41.64±18.29		
Marital status	Single	43.06±14.09	2.649	.009
	Married	37.79±17.58		
Education	High school	42.86±11.72	2.149	.094
	College	39.24±14.24		
	University	37.85±17.73		
	≥ Graduate school	44.59±22.54		
Monthly income (10,000 won)	<300	41.93±13.63	2.075	.104
	300-399	36.65±16.79		
	400-499	37.97±17.48		
	≥500	42.11±17.99		

2.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흡연여부는 흡연 34.71±16.96점, 과거 흡연 37.41±16.32점, 비 흡연 42.31±16.04점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보다 비 흡연인 경우에서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F=5.772$, $p=.003$). 음주여부는 음주 38.41±17.25점, 비 음주 42.61±14.58점으로 비 음주의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고($t=-2.019$, $p=.044$), 규칙적 운동여부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41.04±16.89점으로 외상의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t=2.074$, $p=.039$). 수면시간은 6시간이하 37.93±17.65점, 7-8시간 40.81±15.18점, 9시간이상 52.16±6.36점으로 9시간이상 수면하는 경우가 6시간이하, 7-8시간 수면하는 경우 보다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F=4.693$, $p=.010$).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Smoking	Current ^a	34.71±16.96	5.772	.003	
	Former ^b	37.41±16.32		a<c	
	Never ^c	42.31±16.04			
Drinking status	Yes	38.41±17.25	-2.019	.044	
	No	42.61±14.58			
Regular exercise	Yes	41.04±16.89	2.074	.039	
	No	36.72±15.46			
Sleeping (hr/day)	≤6 ^a	37.93±17.65	4.693	.010	
	7-8 ^b	40.81±15.18			c>a,b
	≥9 ^c	52.16±6.36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40.72±17.21	.954	.386	
	Fair	38.23±16.59			
	Good	37.47±12.49			

3.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계급은 순경 43.57±12.71점, 경장 33.02±16.17점, 경사 37.83±17.86점, 경위이상 47.20±16.33점으로 순경과 경위 이상인 경우가 경장과 경사인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F=11.534$, $p<.001$).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 41.83±14.25점, 6-10년 32.01±16.80점, 11년 이상 43.01±17.55점으로 5년 이하, 11년 이상인 경우가 6-10년의 경우에 비해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고($F=11.640$, $p<.001$), 현재 부서 근무기간은 1년 미만 43.02±16.18점, 1-2년 36.03±15.48점, 3년 이상 40.95±20.92점으로 1년 미만, 3년 이상인 경우가 1-2년인 경우보다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F=6.332$, $p=.002$). 근무부서, 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8).

Table 8.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job-related characteristics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Ranks	Police officer ^a	43.57±12.71	11.534	<.001	
	Senior police officer ^b	33.02±16.17			b,c<ad
	Assistant inspector ^c	37.83±17.86			
	≥Inspector ^d	47.20±16.33			
Total working years at maritime police	≤5 ^a	41.83±14.25	11.640	<.001	
	6-10 ^b	32.01±16.80			b<a,c
	≥11 ^c	43.01±17.55			
Job field	Office job	38.54±18.23	1.768	.135	
	Patrol vessel	40.61±15.81			
	Substation & Branch office	41.69±16.65			
	Special rescue unit	40.40±16.07			
	Others*	29.68±18.21			
Working years at current department	<1 ^a	43.02±16.18	6.332	.002	
	1-2 ^b	36.03±15.48			b<a,c
	≥3 ^c	40.95±20.92			
Job specialties	Maritime	40.88±16.46	1.921	.126	
	Investigation	42.66±13.22			
	Info-communications	31.18±17.52			
	Mission specialist	37.30±16.74			

* Sea special attack team & Aviation division

4.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을 분석한 결과 충격사건 경험 횟수는 1회 미만 38.84 ± 15.97 점, 1-2회 42.04 ± 18.06 점, 3회 이상 51.30 ± 20.49 점이었고($F=3.234$, $p=.041$),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가 44.72 ± 18.34 점으로 외상 후 성장이 유의하게 높았다($t=2.216$, $p=.028$).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 예방 조치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여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교육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Table 9).

Table 9.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experience in shock event (N=2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value
				scheffe
Number of experience of shocking events(/month)	<1	38.84±15.97	3.234	.041
	1-2	42.04±18.06		
	≥3	51.30±20.49		
Organizational precautions after shock events	Yes	40.77±17.42	.160	.873
	No	40.26±18.74		
Psychological consultation after shock events	Yes	44.72±18.34	2.216	.028
	No	37.96±17.85		
Test for PTSD	Yes	42.40±20.70	1.180	.239
	No	39.23±15.69		
Experience of PTSD related education	Yes	41.60±18.75	1.070	.286
	No	39.15±15.84		

5.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과 관련 변수인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외상 후 성장은 회복탄력성($r=.552$, $p<.001$), 사회적지지($r=.478$, $p<.001$), 집단문화($r=.368$, $p<.001$), 합리문화($r=.292$, $p<.001$), 발전문화($r=.203$, $p<.001$), 위계문화($r=.166$, $p=.004$)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0).

Table 10. Correlation among Post-traumatic growth, Resilience, Soci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N=293)

Variables	Resilience	Social support	Group culture	Ration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Social support	.605(<.001)	1				
Group culture	.310(<.001)	.317(<.001)	1			
Rational culture	.490(<.001)	.461(<.001)	.351(<.001)	1		
Developmental culture	.249(<.001)	.317(<.001)	.493(<.001)	.349(<.001)	1	
Hierarchical culture	.251(<.001)	.332(<.001)	.236(<.001)	.402(<.001)	.217(<.001)	1
Post traumatic growth	.552(<.001)	.478(<.001)	.368(<.001)	.292(<.001)	.203(<.001)	.166(.004)

all values are presented at r(p)

C.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변수를 만들어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다중공선성 검정 결과 분산팽창인자 1.18~7.44로 10미만이었고, 공차한계는 0.13~0.84로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Durbin-Watson값도 1.855로 2에 가까워 오차항 사이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다중회귀모형은 56.5%의 설명력을 보였다($F=12.245$, $P<.001$).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여부는 기혼인 경우 보다 미혼인 경우($\beta=.194$, $p=.002$), 흡연여부는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보다 비 흡연인 경우($\beta=.152$, $p=.010$)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beta=-.185$, $p<.001$), 총 근무기간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6-10년의 경우($\beta=-.154$, $p=.033$)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회복탄력성($\beta=.310$, $p<.001$), 사회적지지($\beta=.250$, $p<.001$), 집단문화($\beta=.158$, $p=.004$)도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able 11).

Table 11.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4.931	8.560		-5.249	<.001
Age (/20-29)					
30-39	-3.963	2.745	-.119	-1.443	.150
≥ 40	2.957	3.845	.084	.769	.443
Marital (/Married)	6.667	2.151	.194	3.099	.002
Education (/≥ Graduate school)					
High school	-.396	3.279	-.010	-.121	.904
College	-2.007	3.232	-.044	-.621	.535
University	.098	2.841	.003	.035	.972
Smoking disease (/Current)					
Former	-.787	2.336	-.019	-.337	.736
Never	5.123	1.969	.152	2.601	.010
Drinking status (/Yes)	3.425	1.774	.096	1.931	.055
Regular exercise (/Yes)	-6.623	1.626	-.185	-4.074	<.001
Sleeping (/≤6)					
7-8	.001	1.494	.000	.001	.999
≥ 9	4.760	3.973	.057	1.198	.232
Ranks (/Police officer)					
Senior police officer	1.306	2.898	.036	.451	.653
Assistant inspector	2.486	3.869	.063	.643	.521
\geq Inspector	6.850	4.657	.162	1.471	.143

Table 11.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continued)

Variables	B	SE	β	t	p
Total working years at maritime police(/ ≤ 5)					
6-10	-5.518	2.573	-.154	-2.144	.033
≥ 11	1.157	3.958	.032	.292	.770
Working years at current department(/ < 1)					
1-2	.550	1.645	.017	.334	.738
≥ 3	.483	3.081	.008	.157	.876
Number of experience of shocking events(/ < 1)					
1-2	1.111	2.285	.023	.486	.627
≥ 3	6.600	4.020	.072	1.642	.102
Psychological consultation after the experience in shock event(/Yes)	-.227	1.767	-.006	-.128	.898
Resilience	.522	.098	.310	5.350	<.001
Social support	.255	.059	.250	4.301	<.001
Group culture	1.158	.396	.158	2.923	.004
Rational culture	.522	.491	.061	1.064	.288
Developmental culture	-.580	.364	-.084	-1.593	.112
Hierarchical culture	.212	.428	.026	.494	.621

R=.752, R²=.565, F=12.254, P<.001, Durbin-Watson=1.855

IV. 고찰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 결혼여부, 흡연여부, 규칙적인 운동 여부, 총 근무기간,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조직문화 중 집단문화가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 ± 16.56 점이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을 대상 46.31 ± 17.20 점[7], 경찰공무원을 대상 44.58 ± 12.80 점[8] 연구보다 낮았다. 연구에 따라 충격사건 경험과 집단의 특성이 다르고 측정도구에서도 차이가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외상 후 성장 점수가 더 낮았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 또한 직무 특성상 충격사건 경험이 많지만, 마음동행센터 운영을 통한 마음 건강 회복을 촉진[22]하고 관서 단위별 예방교육 프로그램[23] 등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업무 중 충격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행되지 않고, 외상 후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회복 탄력성은 3.12 ± 0.36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24 ± 0.30 점[12]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낮아졌으며[11,24]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충격사건 경험 시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쉽게 노출 되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응력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높다고 하였다[25]. 회복탄력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원도 필요하다. 해상이라는 특수한 직무 환경에 의해 충격사건에 빈번하게 노출이 되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3.44 ± 0.64 점이었다. 이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64 ± 0.61 점[26]의 연구 결과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개인 성격특성에 따른 수용정도와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해양경찰의 경우 잦은 출동과 경비함정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주일 이상 보내는 근무 특성상 가족과 함께 교류를 통한 긍정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사항을 가정에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사회적지지 효과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광활한 바다에서 1주 이상 제한적이고 고립된 생활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직장상사와 동료의 지지가 해양경찰 조직의 권위적이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족하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지지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 하위영역 중 위계문화가 3.65 ± 0.66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문화가 3.16 ± 0.75 점으로 가장 낮았다.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위계문화가 3.43 ± 0.73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문화가 2.78 ± 0.78 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는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하위영역 중 집단문화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조직 내 관계지향문화가 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결혼여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며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자의 외상 후 성장 정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28]. 하지만 기혼자의 경우 더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9]. 기혼자의 경우 직장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외상 후 성장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미혼자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30]. 또한 미혼자인 경우는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혼자의 비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여가활동을 즐기며[31], 기혼자가 가정관리를 하는 시간 동안 자기개발을 하고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이 완

화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상 후 성장으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흡연여부와 규칙적인 운동 여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며 비 흡연의 경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흡연여부와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다룬 선행 연구는 없었지만, 흡연이 정신·심리상태 간의 부적 관계가 나타나 흡연량이 낮을수록 정신·심리적으로 안정되며[32], 비 흡연자의 경우 흡연자에 비해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신건강 상태에 영향[33]을 끼쳐 외상 후 성장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운동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방법 중 가장 선호되어지는 방법이며, 규칙적인 운동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심리적으로 중재 및 조절하고 인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정신건강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34]. 본 연구 대상자는 비교적 신체 기능 저하가 없고, 신체 활동이 활발한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총 근무기간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며 6-10년의 경우가 외상 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성장을 직접 조사한 자료가 없어 비교 할 수 없지만, 해양경찰 업무 특성상 중간 계층인 6-10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경찰관은 업무 현장에서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경우는 경력이 낮을수록 외상이나 충격에 대한 강도가 높고 심해 그에 따른 외상 후 성장도 크다고 하였고[35],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그로인해 업무에 대한 익숙함과 능숙함이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와 복지 혜택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증가하여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방·감소시키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대상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이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36]에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도 높은 것으로 확인 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충격사건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 요소를 중재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개인의 능력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다면체적 성향을 띠고 있다[15]. 역경을 겪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회복탄력성이 충격사건 경험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하게 반응하고 회복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이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 [10]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36], 외상을 경험한 신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도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지지는 충격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며,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37]. 충격사건 등을 경험한 자신이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 인해 완화를 경험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나 주변의 대인관계를 통한 지지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족 등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 문화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지지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나 지지 등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접근을 통한 지지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하위영역 중 집단문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집단문화로 인식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직문화와 외상 후 성장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집단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통하여 참여 의식이 높고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어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이다[38]. 집단문화로 인식할수록 가족적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분위기의 문화가 조성되고 동료들 간의 협력과 배려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조직구성원들이 공식화된 규정을 중심으로 결속되며 안정성을 강조는 위계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단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위계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문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7]. 따라서 업무 수행 중 충격사건 등을 경험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근한 조직분위기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충격사건 경험 관련 특성은 외상 후 성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경우 충격사건 경험에서 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직원상담, 해양경찰관 동료상담사 양성,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과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없고, 경찰관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인해 스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등의 참여가 저조하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 한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사후조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11].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외상 후 성장 정도를 높이기 위해 각 경찰서 별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보편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하여 기본 교육 및 전문 교육을 받은 해양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의 해양경찰공무원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단면연구 형태로 수행되어 외상 후 성장과 관련 요인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충격사건 이후 질병으로 이환이 아닌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직무 특성상 충격사건에 빈번히 노출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없었던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학문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기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해양경찰관 293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자료는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과 분산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평균 39.72±16.56점이었고, 회복탄력성 평균 84.46±9.85점, 사회적지지 평균 86.16±16.21점, 집단문화 9.50±2.26점, 합리문화 10.79±1.94점, 발전문화 9.61±1.95점, 위계문화 10.96±2.00점이었다.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여부($\beta=.194, p=.002$), 흡연여부($\beta=.152, p=.010$), 규칙적인 운동여부($\beta=-.185, p<.001$), 총 근무기간($\beta=-.154, p=.033$), 회복탄력성($\beta=.310, p<.001$), 사회적지지($\beta=.250, p<.001$), 집단문화($\beta=.158, p=.004$)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6.5%이었다.

본 연구 결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은 개인적인 특성 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 근무 환경 및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향후 스트레스의 완화를 위한 조직 차원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가족 및 동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외상 후 성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Reference

- [1] Kim JG, Kim KH. Effects of traumatic event experience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korea maritime police SWAT.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2013;3(1):3-23.
- [2] Korea coast guard. Korea coast guard PTSD status survey. Dain. 2016.
- [3] Lee OJ, Ji YH. Articles : The analysis of field police officer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for the application of police job stress reduction program.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2010;12(4):173-203.
- [4] Song H, Lee YS. The effects of hardi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post traumatic growth: active coping as a mediating variab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1;12(4):1231-1246.
- [5] Tedeschi RG, Calhoun LG.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96;9(3):455-71.
- [6] Maercker A, Zoellner T. The janus face of self perceived growth: toward a two-component model of post 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2004;15(1):41-8.
- [7] Kwak MY, Bae JY. Post traumatic growth and related factors in fire fight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7;26(2):124-133.
- [8] Lee JS, Park HS.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vocational calling on post traumatic growth in police officer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7;26(4):382-390.
- [9] Jeon BJ, Kim HS.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post traumatic growth in traumatized new public officers application of tedeschi & calhouns model. Gyeonggi Research

- Institute. 2019;21(1):71-107.
- [10] Jung YK, Choi ER,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post traumatic growth in korea police officers - focus on police officers in the metropolitan citie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4;16(5):243-276.
- [11] Chai MH, Lee SH. The effect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resilience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2019;28(1):247-270.
- [12] Kim SH, Lee MH. The degree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marine police officers relationship with resil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11):269-276.
- [13] Lee KH, Moon JS. A study on the effects of PTSD on alcohol use disorders in maritime police officers.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4;16(4):105-129.
- [14] Song SH, Lee HS, Park JH, Kim K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 traumatic growth inventory.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9;14(1):193-214.
- [15]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9;20(4):105-131.
- [16] You JS.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resilience: the mediating effect of time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9, Nonsan, Korea.
- [17] Park J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Seoul, Korea.

- [18] Kim YS.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Seoul, Korea.
- [19] Tracey JB, Tannenbaum SL, Kavanagh MJ. Applying trained skills on the job: the importance of the work environ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1995;80(2):239-252.
- [20] Kim HJ.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in the public sect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002;36(4):87-105.
- [21] Yoon SH. A study on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korea coast guard on work site applic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2017, Seoul, Korea.
- [22] Kim KT. A study on th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management of correction officer. *The Police Science Journal*. 2019;14(3):61-80.
- [23] Fire Service Bureau. Operating plan of 2015 firefighter's counseling center. Seoul: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 [24] Kim SH.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police officers.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018;27(2):69-90.
- [25] Ha BY, Jung EJ, Choi SY. Effects of resilienc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20(1):83-91.
- [26] Moon YM.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middle-aged police' job satisfaction, social support, self concept and career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 University 2018, Jeju, Korea.
- [27] Lee CA, Choi JM.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maritime police officers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engagement. *Korean Association for Organizational Studies*. 2019;16(1):69-99.
- [28] Yang KH. An analysis of post traumatic growth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14, Seoul, Korea.
- [29] Lee SH, Kim DH. The relation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police officers who worked in local patrol divis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2017;16(3):281-310.
- [30] Kim YK. Relationships between role overload and work engagement among employee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8, Gwangju, Korea.
- [31] Yoon S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ingle people time use and leisure behavior : A comparison of single people an unmarried group and a married group.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2;20(6):209-217.
- [32] Choi YH, Chae JH.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cigarette consumption, eating and mental psychological state among adolescents : based on 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321-7328.
- [33] Joo AR.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s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dual earner coupl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1;20(2):221-229.
- [34] Ströhle A. Physical activity, exercise, depression and anxiety

- disorders.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2009;116(6):777-784.
- [35] Cho HM.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cceptance and social support on post traumatic growth in stomach cancer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5, Seoul, Korea.
- [36] Kang HA. Impact of post traumatic stres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ost 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9, Seoul, Korea.
- [37] Tedeschi RG, Calhoun LG. Post 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2004;15(1):1-18.
- [38] Kim J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unsan University 2014, Gunsan, Korea.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문성모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이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저의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각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 최성우(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연구자 : 문성모(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연락처 : 010-8899-0119

IRB연락처: 061-740-7289

E-mail : smmoon82@hanmail.net

I. 다음 문항들은 선생님이 경험한 외상사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상사건 이후 본인의 변화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항 목	전 혀 경 험 못 함	매 우 적 게 경 험	조 금 경 험	보 통 경 험	많 이 경 험	매 우 많 이 경 험
1	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3	영적 ·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다.	①	①	②	③	④	⑤
4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5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①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삶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9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매일 매일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3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종교적인 믿음이 더 깊어졌다.	①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이웃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 인정하게 되었다.	①	①	②	③	④	⑤

II. 평소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다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적절한 문구나 단어를 잘 찾아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재치 있는 농담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싫어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들 모두 적는다면, 아주 긴 목록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나 방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동료가 화를 낼 경우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계 속)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7	나는 사람들의 얼굴표정을 보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별로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0	세상을 둘러볼 때, 내가 고마워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21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 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시에 주위사람들(가족, 친척, 친구, 애인, 선후배, 동료경찰관 등)이 귀하에게 어느 정도로 도움을 주었다고 느꼈는지 해당되는 것에 “V”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항 목	거의 아님	약 간	보 통	많 이	매우 많이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그들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나의 기분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그들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그들은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의논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주고 확실하게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조언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 돈도 마련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8	그들은 무슨 일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언제라도 빌려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몸져 누워있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3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IV. 해양경찰 조직문화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V” 표시 해 주십시오.

문항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충성과 전통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에서는 사기가 중요시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조직에서는 생산지향성과 성취지향성이 공유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은 결과와 성취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에서는 목표달성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의 직원들은 기꺼이 위협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쇄신과 발전에 대한 몰입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에서는 산출물과 새로운 서비스의 발생을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조직은 매우 형식적이며 구조화된 곳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원들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절차에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조직을 결속시키는 힘은 공식적인 규칙과 정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충격사건 경험>,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관한 항목입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만_____세)

3. 결혼 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기타(_____)

4. 학력: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5. 월 가구소득:

- ① 300만원 미만 ② 300-399만원 ③ 400-499만원 ④ 500만원 이상

6. 현 계급: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이상

7. 해양경찰공무원 총 근무 경력:

- ① 5년 미만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8. 현 근무 부서:

- ① 경찰청(경찰서) ② 대형함정 ③ 중형함정 ④ 소형함정 ⑤ 파·출장소
 ⑥ 특공대 ⑦ 특수구조단(구조대 포함) ⑧ 항공대 ⑨ 기타(_____)

9. 현 부서 근무 년 수:

-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2-3년 ④ 3-4년 ⑤ 4년 이상

10. 직 별 (해당 번호와 해당 내용에 O 표시)

- ① 해양경과(항해, 기관, 행정) ② 항공경과(조종, 정비, 관제, 전담)
 ③ 정보통신경과(통신, 전산) ④ 특임경과(구조, 특공, 구급)

11. 한 달 동안 경험하는 충격사건 횟수:

- ① 1회 미만 ② 1~2회 ③ 3~4회 ④ 5~6회 ⑤ 7~8회 ⑥ 9회 이상

12. 경험한 충격사건의 종류(중복 응답 가능):

- ① 중국어선 단속 ② 변사체 처리 ③ 세월호

- ④ 업무 중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해 ⑤ 동료의 상해 또는 손직 목격
 ⑥ 기 타()

13. 충격사건 경험 후 조직차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4. 충격사건 경험 후 심리상담 프로그램(개인상담,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힐링캠프 등) 이용 유무:

- ① 예 ② 아니요

15.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임상적 진단을 받거나 약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8. 충격사건 경험 후 이를 극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지지자원(중복 응답 가능):

- ① 가족 ② 친구 ③ 조직 내 동료 ④ 종교 ⑤ 취미 활동
 ⑥ 성격 등 개인역량 ⑦ 기 타(_____)

19. 흡연 여부

- ① 현재흡연 ② 과거흡연(피우다가 현재 금연중) ③ 비흡연

20. 최근 한달간 음주 여부

- ① 예 ② 아니요 (최근 한달간 마신적 없음)

21. 규칙적인 운동(하루 평균 30분 이상) 여부

- ① 예 ② 아니요

22. 수면 시간: (약 _____ 시간/일)

23.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건강 ② 대체로 건강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